

201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B형 정답

1	㉔	2	㉔	3	㉑	4	㉓	5	㉔
6	㉒	7	㉒	8	㉔	9	㉑	10	㉑
11	㉔	12	㉒	13	㉒	14	㉔	15	㉓
16	㉑	17	㉓	18	㉔	19	㉒	20	㉔
21	㉑	22	㉔	23	㉓	24	㉔	25	㉒
26	㉒	27	㉔	28	㉔	29	㉔	30	㉔
31	㉓	32	㉑	33	㉔	34	㉔	35	㉔
36	㉓	37	㉓	38	㉒	39	㉔	40	㉑
41	㉒	42	㉒	43	㉔	44	㉔	45	㉓

해 설

1. [출제의도] 질문 계획이 질문 내용과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담화 상황에서 면접관의 질문 중 교우 관계에 대해 질문 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2.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에 대해 평가한다.

㉔은 봉사활동의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답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 없다.

3. [출제의도]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답변하는 사고과정을 이해한다.

면접관의 마지막 질문은 지원자가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근거를 들어 답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4. [출제의도] 발표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한다.

A형 4번 참고

5. [출제의도] 듣기 전략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A형 5번 참고

6. [출제의도] 작문 상황에서 글쓰기 전략을 이해한다.

[학생의 구상]을 보면 관심사를 고려한 제제 선정, 정보의 신뢰성을 고려한 자료 수집, 주제를 고려한 내용 조직 방식 결정, 예상 독자를 고려한 어휘 선택 등의 글쓰기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조직한다.

[학생의 개요]의 ㉔은 의식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의 문제점과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㉒의 내용은 정책적 차원에 해당하며, 외국과 비교한 고용 할당금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리 소홀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8. [출제의도] 글쓰기 조건에 맞게 표현한다.

첫 문장에서 설의법이 쓰였으며,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마련’은 각각 의식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의 실천 방안이다.

9. [출제의도] 글을 통해 작문의 특성을 파악한다.

A형 9번 참고

10. [출제의도] 글의 수정 방안을 평가한다.

A형 10번 참고

11. [출제의도] 접반침의 표준 발음에 대해 이해한다.

‘여덟이다’는 [여덟비다]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부정문의 의미 차이를 이해한다.

A형 15번 참고

13. [출제의도] 사동표현의 바른 쓰임새를 평가한다.

<보기1>을 통해 ‘-시키다’는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문장에서 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보기2>의 ㄱ, ㄷ, ㄴ이다.

14. [출제의도] 높임 표현을 이해한다.

A형 14번 참고

15. [출제의도] 문장 성분 간 호응을 이해한다.

‘차마’는 뒤에 오는 동사를 부정하는 문맥에 쓰여 ‘부끄럽거나 안타까워서 감히’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㉓의 문장은 ‘수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등으로 고쳐야 문장성분 간 호응이 이루어진 문장이 된다.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표기법을 이해한다.

이어 적기란 형태소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이며, 끊어 적기란 각 형태소를 분리하여 적는 방식이다. ㉑과 ㉔은 현대 국어 ‘울음’과 ‘웃어’의 이어 적기 표기이며, ㉒과 ㉔은 현대 국어 ‘미워함’과 ‘일은’의 끊어 적기 표기이다. 또한 ㉔은 현대 국어 ‘있으면’의 거듭 적기 표현이다.

17.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A형 16번 참고

18.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A형 17번 참고

1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A형 18번 참고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A형 19번 참고

- [21~24] (인문) 월 듀란트, 「철학 이야기」

근대 영국 경험주의의 대표적 철학자인 로크, 버클리, 흄에 대한 글이다. 이 글에서 로크는 물질과 정신 실재를 모두 인정하였고, 버클리는 정신만이 실재한다고 하였으며, 흄은 수학적 지식과 직접 경험한 인상과 관념만을 알 수 있다고 한정하였다.

21.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제시된 글은 근대 영국 경험주의 철학자인 로크, 버클리, 흄의 지식의 범주에 대한 견해 차이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22.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로크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물질의 실재를 인정하였으며, 이를 지각하는 정신의 실재도 인정하였다. 하지만 버클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물질로부터 비롯된 감각뿐이며, 이는 정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흄은 물질이나 정신 모두 그 실체를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다만 감각, 기억, 개별적인 관념만이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하였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보기>는 개별적 사실로부터 인과 관계를 찾아내어 체계화한 귀납적 추론이다. 흄에 의하면 이때 추론을 위해 필요한 ‘자연은 한결같다’는 가정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가정이므로 ㉒은 알 수 없는 가정에 의한 결론이 된다.

24.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㉔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로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는 뜻이다.

- [25~26] (과학) 강민정, 「질량분석기의 원리와 응용」

질량 분석법의 원리와 그 한계, 이를 극복한 ‘말디’의

원리를 설명한 글이다. 시료의 분자를 분석할 수 있는 질량 분석법은 고분자 물질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말디’의 방법으로 그 한계를 극복했다.

25.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말디’의 방법은 시료에 고분자 물질의 이온화를 도와주는 화학적 완충제를 섞는 것인데, 이는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물질의 변성을 막아준다.

26.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한다.

같은 전기적 힘을 받는 조건 하에서 이온은 질량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검출판에 도달한 이온들을 통해 각 이온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

- [27~30] (사회) 김대식 외, 「경제학원론」

대표적 소비 결정 이론인 케인스의 절대소득가설과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을 설명한 글이다.

27. [출제의도] 글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제시된 글은 절대소득가설을 먼저 소개하고 절대소득가설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을 항상소득가설로 설명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케인스는 절대소득가설을 통해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득이라고 했다.

29.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파악하여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㉔는 항상소득이며, ㉒는 임시소득이다. 그리고 이 둘 모두 실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 씨의 실제 소득은 증가했다. ㉔의 이유는 임시소득의 증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30.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한다.

프리드만은 항상소득가설을 통해 소비는 오직 항상소득에만 의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항상소득을 증가시켜야 그에 따라 가계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 [31~33] (현대시) (가) 김소월, 「삼수갑산」/(나) 문정희, 「울포의 기억」

(가) 김소월, 「삼수갑산」

‘삼수갑산’에 간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설정을 통해 식민지 시대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귀향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나) 문정희, 「울포의 기억」

‘나’를 ‘어머니’가 바다에 데려간 상황을 통해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이겨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숭고함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3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전체적으로 ‘삼수갑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상황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 역시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간’ ‘바다’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바다’를 ‘빨밭’이 있는 공간과 ‘소금기 많은 푸른 물’과 ‘무위한 해조음’이 있는 공간으로 구분하고 대비하였다.

32. [출제의도]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시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물도 많고 산 첩첩’은 ‘삼수갑산’의 모습을 형용한 표현이지, 화자가 떠난 고향의 모습을 형용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물도 많고 산 첩첩’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삼수갑산’의 지형적 특징으로 형용한 것이어서 고향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있다.

33.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화자의 어머니는 화자를 데리고 빨밭을 보여 주기 위

해 바다로 갔다. 화자는 그곳에서 힘겹지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명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모습에서 삶의 숭고한 가치를 깨닫는다. 이 시는 ‘검은 뽕밭’을 ‘푸른 물’과 대비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4.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A형 34번 참고

35.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이해한다.

A형 35번 참고

36. [출제의도] 작품을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이해한다.

A형 36번 참고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이해한다.

A형 37번 참고

38.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파악한다.

A형 38번 참고

[39 ~ 42] (고전소설) 작자 미상, 「남윤전」

작품의 주요 인물인 남윤과 세 여인(공주, 석랑, 옥경선)은 원래 천상계의 인물이었으나 죄를 지어 지상으로 적강하였다가 천상계로 복귀하게 된다. 이 작품의 특징은 주요 인물들이 같은 꿈을 꾸게 되며, 꿈속에서 초월자에게 들은 예언이 지상에서 그대로 실현된다는 점이다.

39. [출제의도] 서사 전개 과정의 특징을 파악한다.

남윤은 꿈속에서 ‘옥황상제’와 ‘노승’(‘안변 서화사의 부처’)로부터 자신과 세 여인(공주, 석랑, 옥경선)이 지상으로 적강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예언을 듣는다.

40. [출제의도] 소재의 서사적 기능을 파악한다.

㉠은 남윤과 공주가 꿈에서 받은 구슬을 현실에서 지니게 되는 상황과 관련 지을 수 있는데, 이는 꿈과 현실을 연결해 주는 매개물로서의 서사적 기능을 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한다.

제시문의 ‘옥황상제의 명’과 ‘노인’의 말에서 ‘공주’는 10년 후에 네 명 중에서 제일 먼저 천상계로 복귀할 것이며, ‘남윤’은 ‘본국’에 돌아가 ‘석랑’과 ‘옥경선’과 함께 살다가 70세가 되면 천상계로 복귀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발화 방식과 발화 내용을 파악한다.

‘공주’는 [A]에서 자신이 죽은 다음에 ‘남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다. 이에 대한 ‘남윤’의 대답을 들은 ‘공주’는 [B]에서 ‘남윤’이 ‘본국’에 돌아가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43 ~ 45] (고전시가) 이현보, 「어부 단가」

이현보가 노년에 정계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유유자적하며 지냈는데 이때의 삶을 형상화한 연시조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을 완상하는 가운데 내면을 닦기도 하지만 우국의 심정으로 괴로워하기도 한다.

43.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작품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44. [출제의도]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이해한다.

제4수에서 ‘내 시름’은 ‘장안’의 ‘북궐’에서 비롯된 근심을 말한다. ‘장안’의 ‘북궐’은 임금을 상징하며 여기에서 비롯된 시름은 나라에 대한 근심이다.

45.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을 비교를 통해 파악한다.

이 작품의 ‘만첩청산’은 ‘천심녹수’와 함께 ‘십장홍진’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보기>의 ‘머흔 구름’과

‘파랑성’도 세속적 공간인 ‘세상’과 ‘던환’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